

‘멘탈 甲’ 박인비

LPGA 웨그먼스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

개인 통산 5번째 메이저 왕관...박세리와 타이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LPGA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18일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먼로 골프클럽(파72·67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브리트리니 린시킴(미국)과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박인비는 파를 지켜 보기를 적어낸 린시킴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우승컵을 차지했다.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인비는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메이저 왕관을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33만7500달러.

박인비는 또 앞서 열린 세차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가져간 미국 선수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패했던 아쉬움도 깨끗이 털어내고 하반기 대반격을 예고했다.

박인비는 작년 이 대회에서도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를 연장전에서 꺾고 우승했다. 박인비는 이 대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연속 우승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이후 9년 만에 타이틀을 방어한 선수로 기록됐다.

린시킴보다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시작한 박인비는 전반에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전반에 1타를 줄인 린시킴은 11번홀(파4)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격차를 3타로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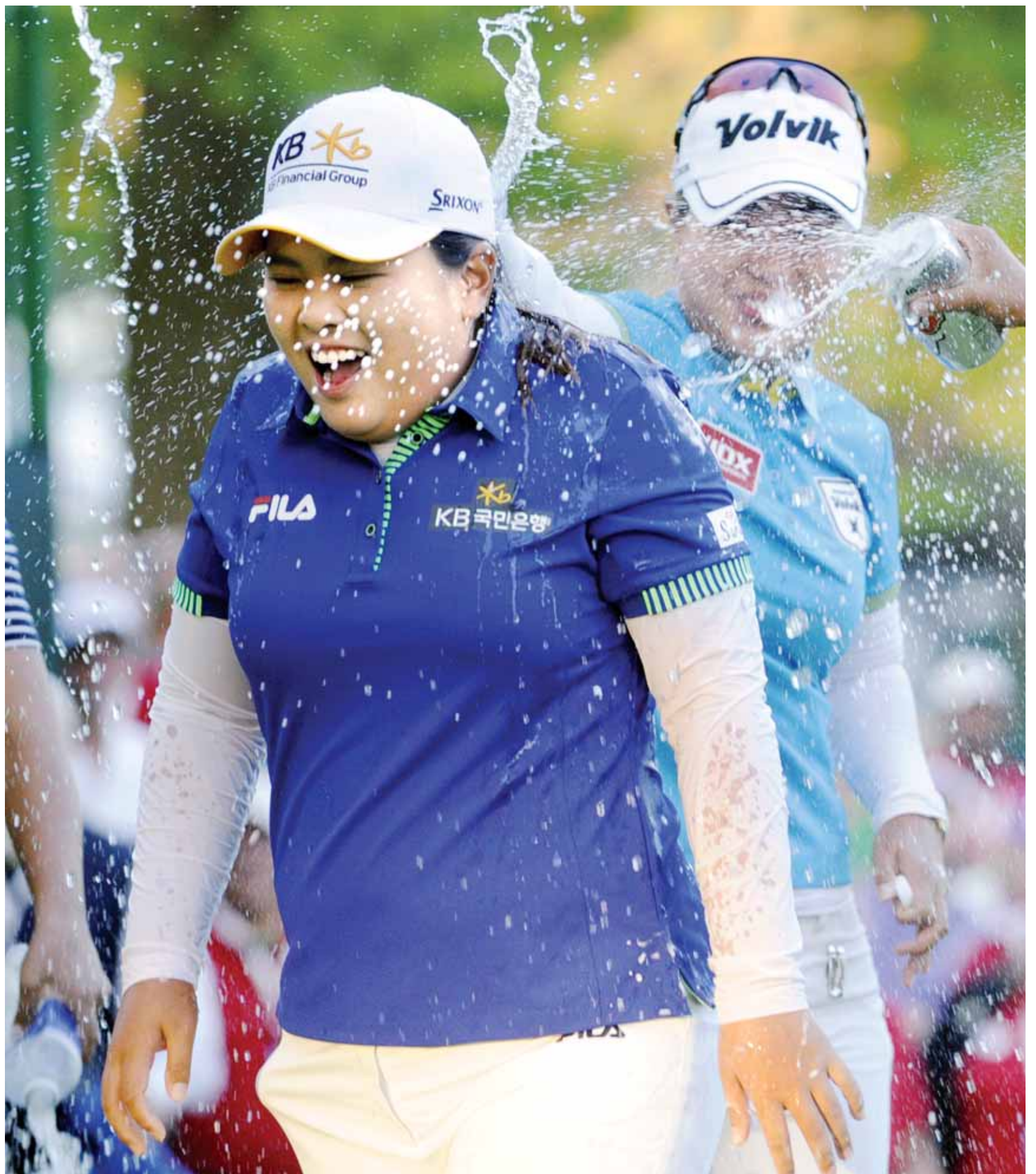
박인비는 12번홀(파5) 버디로 반격을 시작했지만 14번홀(파5)에서 찾아온 동타의 기회를 놓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다. 박인비가 세 번째 샷으로 홀 2m 거리에 불을 떨어뜨렸지만 버디 퍼트를 놓쳤다. 반면 린시킴은 그린 가장 자리에서 친 어프로치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이면서 또 1타를 줄였다.

박인비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린시킴을 1타차로 압박했다. 18번홀(파4)에서 린시킴은 2m가 안 되는 파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같은 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는 박인비의 집착함이 린시킴을 압도했다.

박인비는 티샷을 린시킴보다 30야드가량 덜 보내고 두 번째 샷도 그린 뒤 러프로 보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두 번째 샷을 그린 가장자리로 보낸 린시킴이 웨지로 불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1.5m 남짓한 파퍼트를 놓쳐 고개를 숙였다. 박인비는 러프에서 친 웨지샷을 홀 1.2m에 보낸 뒤 실수없이 파퍼트를 넣어 승리를 완성했다.

박인비는 “오늘은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며 “특히 작년에도 연장전에서 우승해서 그 경험이 침착하게 경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더야 고(17)는 마지막 날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17번홀과 18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하며 3위(8언더파 280타)에 자리했다.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은 공동 6위(5언더파 283타)에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박인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먼로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LPGA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연장전 끝에 브리트리니 린시킴(미국)을 물리치고 우승한 뒤 동료 선수들에게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은 KIA편?

첫 월요일 경기 우천 지연...충분한 휴식에 체력 충전

“해브리아 하는데...” KIA 선수들에게는 낯선 월요일이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일정상 월요일 경기가 편성되어 있지만 아직 KIA는 한 번도 월요일에 경기를 치른 적이 없다.

지난 5월5일 치러졌던 월요일 경기는 어린날에 맞춰 편성된 경기였고, 삼성과 예정됐던 8월4일 월요일 경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월요일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팀은 KIA와 최소 경기(94)를 소화하고 있는 두산 두 팀 밖에 없다.

반면 18일 상대였던 넥센은 3주 연속 월요일 경기를 하느라 고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월요일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나온 KIA 선수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날씨였다. 특타조의 훈련이 시작될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하늘이었지만 본격적인 훈련 시작을 앞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장에 나오던 선수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보면서 경기 진행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잠시 토론의 시간도 벌어졌다.

이대형이 “지금 구름떼가 광주로 들어왔다. 오늘 경기하기 힘들 것이다”고 말을 하

자 아예 김태영은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큰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몸으로 날씨를 예측한 이도 있었다. 서재용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고 웃었다.

선수들의 예상대로 이내 비가 굵어졌고 결국 월요일 경기는 없던 일이 됐다. 정상적으로 화요일부터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비이기도 했지만 충분히 쉬었던 KIA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기도 했다.

KIA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가 된 최고참 최영필은 구수한 사투리로 “해브리아 하는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동안 대기했던 김병현에게도 아쉬운 비가 됐다.

넥센에게는 힐링 투어가 됐다. 비로 하루 더 광주 일정이 늘어나면서 3박4일을 광주에서 머문 넥센. 첫 날 경기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휴식에 이은 휴식 일정을 소화한 넥센은 LG와의 홈경기를 위해 부지런히 길을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킬’ 도전!

양현종, 오늘 삼성전 선발...승리시 생애 두번째 전구단 상대 기록

절치부심(切齒腐心) 기다려온 승부다. ‘에이스’ 양현종이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홈경기에 출격한다. 17일 우천지연에 이어 18일로 미뤄졌던 월요일 경기마저 취소되면서 김병현 대신 양현종이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특별한 각오는 없다”고 말을 아끼기는 했지만 양현종에게는 욕심이 나는 경기다.

올 시즌 양현종에게는 삼성전 첫 출격이다. 올 시즌에도 팀은 삼성전에서 2승7패를 기록하며 사자 앞에 고양이가 됐다. 에이스의 이름으로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싶은 게 양현종의 바람이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첫 선발로 나서는 만큼 양현종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도 있다.

양현종은 “첫 선발로 나서는 만큼 팀 승리를 목표로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첫 게임이라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내 역할에 따라 다음 경기, 불펜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악몽을 털어내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양현종의 15승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다.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를 거둔 양현종은 전반기 14경기에서 2.3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9승1패를 챙겼다. 1패도 넥센전에서 남은 0-1 완투였다. 삼성을 상대로도 7.1이닝 3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의 호

투로 승을 챙겼었다. 하지만 거침없던 양현종의 기세가 삼성전 부상과 함께 꺾였다. 지난해 6월28일 양현종은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옆구리 부상으로 마운드에 주저앉아야 했다. 이날 경기는 앤서니의 4번째 불펜세이브가 나오면서 역전패로 끝났다.

우측 늑간 근육 부상으로 재활조가 됐던 양현종은 복귀 이후에도 부상이 재발하면서 화려했던 시작과 달리 쓸쓸하게 시즌을 마감했다.

부상의 악몽을 딛고 올 시즌 에이스 자리를 차지한 양현종에게는 넘고 싶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기록도 있다. 양현종이 19일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게 되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구단 상대 승리 기록을 만들게 된다.

양현종은 “2010년도에 전구단 승리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큰 의미는 두지 않겠다. 잘 치는 타자들을 만나게 된다. 어려운 상대라고 기록치 않고 내 공을 던지면 될 것이다. 상대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양현종은 역대 삼성과의 경기에서 4.70의 평균자책점으로 35경기 6승6패 1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선발로는 20차례 등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